독배를 마실 때 문천상을 남향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 죽었는데 그 의대衣帶에 다음과 같이 지은 찬贊이 있었다. ‘ 공왈성인孔曰成仁 : 공자는 인仁을 이룬다 하고 맹왈취의孟曰取義 : 맹자는 의義를 취한다 하였으니 유기의진惟其義盡 : 오직 의로움을 다하면 소이인지所以仁至 : 그로써 인에 다다르리다. 독성현서讀聖賢書 : 성현의 책을 읽고 소학하사所學何事 :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금이후而今而後 : 지금 이후로 서기무괴庶幾無愧 : 부끄럽지 아니하기를 바라노라. ’

제목 천상불굴天祥不屈은 문천상이 굽히지 않았다는 뜻이다. 문천상은 송나라 길수吉水 사람으로 자는 송서宋瑞 또는 이선履善 호는 문산文山이며 이종理宗 때 진사進士를 하여 공주?州의 지사知事가 되었다. 공종恭宗 때 원병元兵이 침입하자 문천상은 고을의 의병과 계동산溪峒山의 묘족苗族을 일으켜 조명詔命에 따라 근왕勤王하여 우승상右丞相을 배하고 원나라 군중에 화의를 청하는 사신으로 들어갔다가 피집被執되어 진강鎭江에 이르렀을 때 밤중에 탈신해서는 전전한 끝에 온주溫州에 이르러 도종度宗의 서장자庶長子 익왕益王 조하趙昰를 세워 단종端宗이 되게 하고 부름을 받아 복주福州에 가서 좌승상左丞相에 강서도독江西都督이 되었다. 원병에게 패하여 순주循州로 도주해서는 다시 수습하여 위왕衛王 조현趙昺을 황제로 세우고 신국공信國公에 봉해졌다. 위왕은 도종의 적자嫡子로서 이때 4세에 즉위해 공종恭宗이 되었는데 1년 뒤에 임안臨安에서 원병에게 잡혀 북송되어 영국공瀛國公으로 강등되고 이윽고 승려가 되었다. 이러한 공종을 받들고 조양潮陽으로 가 둔치고 원병과 맞서던 문천상은 원장 장홍범에게 패하여 붙잡히고 연경燕京으로 끌려가 구금되어 3년이 지나면서도 끝내 굽히지 않다가 47세로 피살되었다. 원 세조世祖 쿠빌라이가 그를 진남자眞男子라고 일컫고 회유코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그가 죽음에 임하여 지은 정기가正氣歌가 유명하다. 저술로 문산집文山集과 문산시집文山詩集을 남겼다.

장세걸張世傑은 송나라 범양范陽 사람으로 거듭 벼슬하여 보강군승선사保康軍承宣使에 이르렀다. 원군元軍이 남진하여 핍박하니 주군州郡이 다 함락되는데 장세걸은 군사를 정비해 절서浙西의 여러 고을과 평강平江 및 율양溧陽의 여러 성을 수복하여 연강제치부사沿江制置副使가 되었다. 그러나 곧 여러 군현을 수복했다가 다시 잃게 되고 대세가 이미 기울자 어쩔 수 없이 전전하면서도 제병帝昺, 즉 상흥제祥興帝를 호종하여 애산崖山에 주둔하고 월국공越國公에 봉해졌다. 원장 장홍범이 애산을 파하자 장세걸은 10척의 배로 바다에 들어갔고 제병이 바다에 빠져 죽자 다시 애산에서 병력을 수습하여 조씨趙氏의 후사를 세우려다가 그 배가 뒤집혀 익사했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국망가파견충신國亡家破見忠臣 : 나라 망하고 집안 깨짐에 충신을 보는데

앙약종용욕살신仰藥從容欲殺身 : 사약을 바라보며 조용히 몸을 죽이려 하네

중의경생종불굴重義輕生終不屈 : 의리 무겁고 삶은 가벼워 끝내 굽히지 않아

고명천재독리륜高名千載獨離倫 : 높은 이름이 천년토록 홀로 무리에서 떠났네

계옥간신지월여繫獄艱辛至月餘 : 옥에 갇혀 간난신고가 달포에 이르러도

일신충절불투초一身忠節不渝初 : 한 몸의 충절이 처음에서 달라지지 않고

의중유찬사심절衣中有贊辭深切 : 옷에 쓴 찬의 말씀 깊고 절실하여

무괴평생소학서無愧平生所學書 : 평생토록 배운 글에 부끄러움이 없네

187. 방득여소枋得茹蔬

원나라의 북군北軍이 요주饒州를 공격하니 강동제치사江東制置使 사방득謝枋得이 안인安仁에서 막아 싸우다가 거듭 패하여 변성명을 하고 당석산唐石山으로 들어갔다. 원나라 군사가 신주信州에 이르러 방榜을 써 붙이고 끝까지 추적해 잡고자 하면서 그의 처 이씨李氏를 양주楊州로 잡아갔고 사방득은 창산蒼山 등처로 들어가 기구한 산곡을 전전하다가 갑신甲申(원세조 21년, 1284)에 대사령이 내려 세상에 내려오니 이때 그 처 이씨는 이미 죽은 뒤라 건양建陽의 역교驛橋에 우거하였다.

무자戊子(1288)에 복건행성福建行省의 참정參政 위천우魏天祐가 연경燕京에 조회를 가면서 사방득에게 같이 북행할 것을 핍박하였다. 사방득이 이를 따르지 않고 내심 죽기로 서약하되 결국 면치 못할 것을 알고 곧 음식을 먹지 않았다. 위천우가 와서 말을 하면 앉은 채로 대답을 아니하고 혹은 업신여기는 소리로 무례하게 대했다. 그래도 위천우가 양보하면서 말하기를 ‘ 봉강封疆을 받은 신하라면 마땅히 봉강에서 죽어야 하거늘 안인安仁에서 패하고서는 어찌해 죽지 않았는가 ’ 하니 사방득이 ‘ 정영程嬰과 공손저구公孫杵臼의 일을 보면 한 사람은 앞서 죽고 한 사람은 뒤에 죽었소. 왕망王莽(황제의 국구國舅로서 전한前漢의 애제哀帝를 폐하고 평제平帝를 독살한 다음 칭제하고 신新나라를 세웠으나 후한의 광무제光武帝에게 망함)이 한나라를 찬탈한 14년에 공승龔勝이 죽었는데 죽음에 있어서는 무거운 것은 태산과 같고 가벼운 것은 기러기의 터럭과 같으니 이는 관棺을 덮은 뒤에야 일이 정해지는 것이오. 참정께서 어찌 이를 더 잘 알지 못하겠소 ’하고 사절하며 음식을 먹지 않기를 20여일 하여도 죽지 않았다. 이에 다시 음식을 먹었고 마침내 가마에 누운 상태로 채석강采石江을 건너 북으로 가면서 또 음식을 거절하고는 다만 채소와 과실만을 먹었다. 그렇게 한 것이 몇 달이었으므로 몸이 곤태困殆하게 되더니 기축己丑(1289) 4월 초하루에 연경에 도착해서는 초닷새에 역참驛站에서 죽었다.

제목 방득여소枋得茹蔬는 사방득이 채소만 먹었다는 뜻이다. 사방득은 송나라 익양弋陽사람으로 자는 군직君直, 호는 첩산疊山이며 이종理宗 보우寶祐 초년에 진사進士로 급제하였는데, 그에 앞서 이미 민병民兵을 모집해 근왕勤王하기도 하였다. 벼슬에 나가서는 권신 가사도賈似道를 촉범하여 흥국군興國軍에 유배되었다가 도종度宗 함순咸淳 연간에 사면되어 돌아왔고 공종恭宗 덕우德祐 초에 강동제형江東提刑 겸 지신주사知信州事로서 원병이 쳐들어오자 이를 막아 싸우다가 패전하고 성이 함락되어 피주해 건녕建寧의 당석산唐石山에 은둔하였다. 송나라가 망하자 민중閩中에 우거하였는데 원나라사람이 북행을 강제하므로 절식을 하다가 64세로 죽었다. 뒤에 그 문인門人들이 사사로이 문절文節로 시호를 올렸으며 세상에서 첩산선생이라 불렀는데 문집을 남겼고 그가 편찬한 문장궤범文章軌範이 널리 읽혔다.

위천우魏天祐는 원元나라 익도益都사람으로 자는 길보吉甫이며 원 세조世祖 지원至元 연간에 복건로관군총관福建路管軍總管 겸 지소무군사知邵武軍事가 되어 관할 전읍全邑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군軍을 부府로 승격시켰다. 검구劍寇가 경내를 침범해 들어오자 이를 다시 평정한 뒤에 복건행성福建行省의 참정參政이 되었다. 계책을 세워 황제에게 올리고 백성 1만을 징발하여 광산을 파 은銀을 제련하면서는 백성에게 세를 부과하여 저자의 은을 관으로 운수케 하고 사사로이 170여정錠의 은을 모았다가 대신臺臣의 안찰에 걸려 파직되었다.

정영程嬰은 중국 춘추시대 진晋나라 사람으로 조삭趙朔이란 사람과 친한 벗이었다. 도안가屠岸賈가 조삭을 죽이고 그 일족을 멸하는데 조삭의 아내가 유복자遺腹子를 낳으니 정영이 조삭의 문객 공손저구公孫杵臼와 의논하여 다른 사람의 아이를 대신 업고 산속으로 숨어 들어갔다. 그리고 정영이 혼자 나와 공손저구가 아이와 숨어 있는 곳을 일러 주어 도안가의 장수가 공격해 공손저구가 아이와 함께 살해되게 하였다. 정영은 조삭의 진짜 고아를 안고 산중으로 들어가 살다가 뒤에 한궐韓厥이 경공景公에게 말하여 조씨의 후사를 세우게 하니 후사가 된 그 유복자가 곧 조무趙武이고 조무는 이윽고 도안가를 공격하여 멸하였다. 그런데 정영은 조무가 이미 자라서 관례冠禮를 올리고 나자 ‘ 이제 마땅히 내려가 선맹宣孟(조무의 조부 조순趙盾의 시호)과 저구에게 보답해야겠다 ’하고 마침내 자살하였다. 여기에서 공손저구가 먼저 죽고 정영이 뒤에 죽은 것은 의리가 같다는 것이다.

공승龔勝은 전한前漢의 초楚사람으로 팽성彭城에 가거家居하며 자가 군빈君賓이었는데 공사龔舍라는 이와 벗하며 둘이 호학명경好學明經으로 저명하여 세상에서 양공兩龔이라 불렀다. 처음에 군리郡吏로서 효렴孝廉으로 세 번 천거되고 다시 무재茂才로 천거되어 중천령重泉令이 되었다가 병으로 사직했다. 애제哀帝가 불러 간의대부諫議大夫를 삼았다가 곧 광록대부光祿大夫가 되었는데 왕망王莽이 정권을 잡자 공사와 함께 벼슬을 버리고 향리로 돌아가 은거했으며 왕망이 제위를 찬탈해서는 인수印綬와 안거사마安車駟馬를 반납하였는데도 상경上卿으로 징배徵拜되었다. 이에 공승이 문하생 고휘高暉 등에게 ‘ 내가 한실漢室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는데 한 몸으로 어찌 두 성씨를 섬기겠는가 ’하고 마침내 절식絶食하여 79세로 죽었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최봉함적지무성摧鋒陷敵志無成 : 선봉이 꺾이고 적에게 함락되니 뜻을 이룰 수 없어

둔적산림변성명遁跡山林變姓名 : 산림에 자취를 숨기고 성명도 바꾸더니

수월여소종사절數月茹蔬終死節 : 몇 달을 채소만 먹다 끝내 절개로 죽어

늠연천재수풍성凜然千載樹風聲 : 송연한 바람소리 천년을 들레게 하네

원병질탕역난당元兵跌宕力難當 : 원나라 군사 방탕하되 힘으로 당하기 어려워

전패유리우건양戰敗流離寓建陽 : 패전으로 흘러다니다 건양에 우거하면서

수사이군경일사羞事二君輕一死 : 두 임금 섬김 부끄러워하다 한번 죽음 가벼이하니

명류죽백갱휘광名留竹帛更輝光 : 죽백에 남긴 이름이 다시 빛을 발하네

바로 고침

2008년 10월 1일자 본보 제118호 7면‘ 화산부원군 이하 3대 추향 ’기사 제3단 제1행‘ 초헌관 : 권진택權晋澤 은 ‘ 초헌관 : 권진택權鎭澤 의 잘못이기에바로잡습니다.

근기요산회 11월 산행 안내

안동권씨근기요산회近畿樂山會의 2008년 11월 정기산행을 서울 북악산의 성곽 순례로 정하였사오니 많은 회원의 참여 바랍니다. 항상 가족과 노약자의 동반을환영합니다.

일 시 : 2008년 11월 15일(세번째토요일) 10시
집결장소 : 와룡공원(지하철3호선안국역2번출구밖에서02번마을버스로이동하여성균관대후문에서하차후 30미터올라감)
등산로: 와룡공원에서‘ 말바위안내소 로올라가 관람수속을필하고숙정문 · 곡장등을거쳐청운대까지올라가식회와중식을마친 다음 하산팀은 숙정문으로 회귀하여 성북동이나 삼청공원으로하산하고, 계속등반팀은백악정상(342m)을거쳐창의문으로하산.
준비물 : 주민등록증, 등산화 · 운동화 · 간편복차림및선택적이동식
연락처 : 권병일총무 011 - 289 - 1747·권기윤 010 - 7282 - 3608

안동권씨근기요산회장權寧翼